목사 안수 후보자를 위한 안내서
A Handbook for Working with Candidates for Ordination

지방회 사목 위원회 용도로 사용되는 자료임
FOR USE BY REGIONAL COMMISSIONS ON MINISTRY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2010 년 가을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총 사목 위원회가 발간한 것임
Prepared by the General Commission on Ministry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all, 2010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의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근거와 정책과 기준에 대한 교회의 사용권 위임에 대하여 Concerning the Authorization for the Church's Use of the Theological Foundations & Policies and Criteria for the Ordering of Ministry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의 도안(The Design)은 세 차원으로 표현되는 교회로서의 공동체적 삶의 질서를 묘사하는 문서이다. 도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통된 사역을 표현하고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총회에 의해 승인 되었고 교회의 여러 다양한 기관들에게 그들의 책임에 대하여 그 뜻을 전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서로의 언약 관계 아래에서 공통의 사명이 수행되기 때문에 교회로서 중요한 사항들을 재 인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 *"국가간 경계를 넘어서 본 교단은 회중교회와 지방회와 총회가 서로 언약 관계에 있음을 표현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묶여 있으며 각 차원의 교회가 고결함과 자율적 관리 권한, 권리와 책임 등을 지니면서 동시에 서로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상호간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을 감당하도록 약속 되어있다." (두번째 문단 2)*

교회 사역자의 지도력을 가능케 하고 체계화 하기 위해서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의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근거와 정책과 기준에 대한 문건을 지원하기 위한 권한 위임이 제자교회 도안(The Design)에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 "이와 같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는 목회사역을 위한 정책과 기준을 정의하고, 사명과 증인된 삶을 위한 새로운 목회 양식을 개발하고, 지상에서 성직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개혁하고, 적용하는 일에 힘쓴다." (네번째 문단)

이러한 목적은 어떤 위원회나 조직이나 기관 등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긍극적으로 전국 총회(General Assembly)를 통하여 성취된다. 이 사항은 도안(The Design)의 목회(Ministry)란에 분명히 명시 되어있다.

> *"크리스천교회 (제자회)는 전국 총회를 통하여 목회 사역을 위한 정책과 기준을 승인한다,…" (86 문단)*

지방회는 교단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실행 할 책임을 지닌다.

> *"지방회는 전국 총회에서 채택된 정책들을 바탕으로 목회자 신분, 자격, 청빙과 해임, 목사안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와 교회에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상담이나, 목회적 돌봄 (Pastoral Care)을 제공한다…." (24 문단)*

목사안수 후보자를 위한 안내서

A HANDBOOK FOR WORKING WITH CANDIDATES FOR ORDINATION

지방회 사목 위원회 용도로 사용되는 자료임

소개 (AN INTRODUCTION)

본 안내서는 지방회 사목 위원회가 교단의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근거와 정책과 기준 (TFPCOM2009)의 항목 (Section II.C.3) (즉 목사 안수 후보자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책임이 지방회에 주어져 있음)을 실행할 때 안내 역할을 하기 위해 쓰여졌다. 총 사목위원회는 본 안내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본 안내서의 어떤 부분은 지방회 사목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더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귀 지방회에 이미 효과적인 안내 규정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실행해도 무방하다.

본 안내서는 다음 분야의 정책을 실행하는데 연합 그리스도의교회 (the United Church of Christ)의 노고에 힘 입은바 크다: **'목회적인 이슈: 목회자의 지도력 형성과 준비, 목회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도움이되는 준비 작업.'** *총 사목 위원회는 지방회 사목 위원회에 가장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신중하게 선택했고 적용하였다.*

개관 (AN OVERVIEW)

본 안내서는 안내 절차의 기본 철학과 원리를 설명하고 초기 평가 (INITIAL ASSESMENT)와 진행중 평가 (ONGOING ASSESMENT) 두개의 부분으로 이어진다.

초기 평가중에 사목 위원회와 안수 후보자는 후보자의 다음 사항들을 점검한다: *1) 목사 안수 후보 자격, 2) 지식과 기술, 3) 현재 삶의 정황. 이러한 점검을 통해 지방회 안수 위원회와 안수 후보자는 목사 안수에 대해 적절한 준비를 하게되며,* **각 후보자에 적합한 개별화 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게된다.**

진행중 평가를 통해 위원회와 후보자는 후보자의 안수 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기회를 갖게되며 이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자의 계획을 적절하게 수정하게 된다.

기본철학:새로운 패러다임

UNDERLYING PHILOSOPHY: A NEW PARADIGM

지방회 사목위원회가 목사 안수 후보자를 인터뷰 할 때 역점을 두는 것은 10 가지 개인적 목사 자격 요건에 관해서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이다. 16 분야중 마지막 항목은 "탁월한 목회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과 능력"이다 (TEFCOM 2009:II.A.2j).

이러한 개인적 목사 자격 요건들은 목사가 후보기간 중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성격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개인적으로 또한 전문인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성장 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이해 되어진다. 예를들면, "한 개인의 목회에 대한 소명"이나 "목회적 삶의 이해" 등은 그의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통찰력을 가지고 개발해야 하는 분야이다.

최근에 승인된 "목회 사역을 위한 신학적 근거와 정책과 기준" (Theological Foundations and Policies & Criteria for the Ordering of Ministry) (TEFCOM2009)에 나타난 가장 광범위한 변화는 페러다임 변화이다. 즉 안수 목사 준비를 학력 (보통 정규 학력인정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는 수준 M.Div.)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을 "탁월한 목회 사역을 위한 기술과 능력" (TFPCOM 2009:II,A.2j)의 종합적인 성장에 촛점을 맞춘 것이다.

과거의 "목회 사역을 위한 정책과 기준" (Policies and Criteria 2003)은 폭 넓은 신학적 연구를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안수 후보자는 크리스천 믿음, 성경, 교회, 역사, 크리스천 교회(제자회)의 역사와 정책,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 크리스천 사명 (Policies and Criteria 2003: I.C. 2b) 등에 대해 이해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최소한 대학 교육을 이수하고 신학 대학원 교육을 받는 수준을 요구하였다 (Policies and Criteria 2003: III.C.2). 그러나 새로운 기준은 목사 안수 후보자가 탁월한 목회사역을 할 수 있는 특징들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목회의 실질적 분야인 16 개 항목에 주안점을 둔다.

이 새로운 정책은 2011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여전히 목회학 석사 (M.Div.)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목사 안수 후보자는 신학 대학원 과정을 마칠 것을 기대한다. 다만 지방회, 혹은 지방회 사목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후보자의 여러 여건 즉 경제상황, 언어적인 문제, 직업적 환경 등을 고려해서 훈련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예외이다." (TFPCOM 2009: II.C.2). 하지만 학위 우선에서 목회 실천 분야의 경쟁력 으로 이동한 것은 확실하다. 후보자는 이를 지방회 사목 위원회에 증명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페러다임은 지방회 사목 위원회가 후보자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9 가지 개인적 자질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16 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총 사목 위원회가 추천하는 원리중 하나는 모든 안수 후보자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범 교단적으로 일치된 평가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비록 신학 대학원의 프로그램이 목회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과 체계를 제공 한다고 할지라도, 목회사역을 위한 10 가지 개인적 자질을 증명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하지 않으며, 16 개 항목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후보자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위원회가 함께 각 후보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 체계화된 전략을 개발해 나갈 때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게된다.

지방회 사목위원회를 위한 기본적 원리들
(BASIC PRINCIPLES FOR REGIONAL COMMISSINS ON MINISTRY)

총 사목 위원회는 지방회 사목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들을 따를것을 권장한다:

1. **목사 안수 후보자로서 절차를 밟는 동안 계속해서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 기술, 능력 등을 평가한다.**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안수식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므로서 평가를 원할하게 할수 있고 후보자의 재능이나 성장해야할 부분들에 대해 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후보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2. **후보자의 특별한 개인적 자질이나 기술 혹은 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할 때 한다.** 어떤 개인적 자질들은 언제해도 상관 없지만 기술이나 능력 등은 후보자가 충분한 교육을 받거나 그 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쌓았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 될 수 있다.

3. **가능하면 후보자의 실제적 목회 경험을 근거로해서 평가한다.** 평가목적이 신실하고 효과적인 목회 사역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평가는 신학교에서의 논문이나 시험 성적 보다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잘 하느냐에 촛점을 두는 것이다. 목회 실습 담당 수퍼바이저와 멘토가 보내온 보고서, 설교 샘플, 성경 공부 교안,모의 청빙 위원회 면접 등이 효과적인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다.

4. **후보자에 대해 잘 아는 다른 사람이나 커뮤니티로 부터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수집한다.** 특히 후보자의 커뮤니티 멤버들을 평가 과정에 합류시켜 후보자를 더 잘 이해하고 후보자가 목회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특한 문화에 대한 상황과 필요와 관점을 배우려는 것이다.

5. **사목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을 제공할 책임이 후보자에게 있음을 알린다.**

6. **기준들을 역동적으로 적용한다.** 어떤 사람도 이 모든 자질을 다 고루 갖추기는 어렵다. 이미 안수 받은 목사라도 이 모든 자질과 기술과 능력을 고루 갖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인 평가를 하도록 독려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사용하므로써 후보자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 극복을 극대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목사 안수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이나 기술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한 개인의 특성 전체를 보여 주거나 혹은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기 보다는 인격의 견고함과 깊이에 있어서 어느정도 변화가 가능한 특징으로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목 위원회는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이나 기술 능력에 관해서 질문하는 방식을 "이 후보자가 이러 저러한 자질을 나타내느냐 아니냐?" 식의 질문 보다는 **"이 후보자가 어떤 특별한 자질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가?"** 라는 식의 질문이 더 도움이 될것이다.

8. **성장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둔다**. 그리고 평가 과정속에서 드러난 사항 즉 목회 준비 정도라든지 성장이 필요한 부분등에 대해 위원회와 후보자가 함께 결정을 내린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평가 기준을 향후 성장이 필요한 곳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써 발전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다.

초기 평가 (INITIAL ASSESMEN)

목사 안수 후보자에 대한 초기 평가는 후보 자격의 적절한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스텝이 된다. 이 첫 걸음에서 목사안수 위원회는 후보자의 재능과 능력을 알아내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육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목회사역을 위한 준비는 한가지 싸이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특별한 재능, 필요, 경력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후보자는 지방회 사목 위원회와 공동 협력을 통해 후보자 개인의 재능, 필요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교회의 필요에 상응하는 개별화된 교육과 육성책을 개발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된다.

목사 안수 위원회는 모든 안수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신학 대학원 진로 (Seminary Track) 에 해당 하는지, 견습생 진로 (Apprentice) 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조언 할 책임이있다.**

초기 평가는 목사 안수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력 그리고 개인적 자질을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후보자가 더 준비를 잘 해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회의 교육 프로그램과 육성책이 마련 되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후보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초기평가는 후보자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육성책을 도모하게 해준다. **이 계획을 통해 후보자가 안수 준비를 잘 하도록 인도해주며, 계획속에 포함 되어있는 각 과정을 마칠 때 후보자의 안수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인도한다.** 이 계획으로 중간 과정을 밟을 때 필요할 경우 손질을 하게 되고 안수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초기평가에는 두개의 차원이있다: 상호 작용과 균형이다. 후보자의 개별화된 교육과 육성정책 개발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균형을 맞춘다.

하나의 차원은 10 가지 항목의 개인적 자질과 관계있는데 이는 16 개 분야의 목회 실습을 포함한다. 이는 목회 사역의 신학적 근거와 정책과 기준 (Theological Foundations & Policies and Criteria for the Ordering of Ministry)에 명시 되어있다. 이 평가의 결과를 통해 위원회는 후보자가 안수 받을 준비가 잘 되었는지 혹은 교육과 육성 정책을 더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또 다른 차원은 후보자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문화, 경제, 언어, 직업, 가족 등) 이 평가를 통해 사목 위원회는 후보자가 신학 대학원 진로에 있든지 혹은 실습생 진로에 있든지 안수 준비가 잘 되도록 양육하기 위하여 후보자에게 가장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육성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목회 사역을 위한 개인적 자질 평가
(ASSESING PERSONAL QUALIFICATIONS FOR MINISTRY)

지방회 사목 위원회와 후보자 사이의 관계 초기부터 후보자의 영적 개인적 발달을 위해서는 목회사역을 위한 개인적 자질과 관련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한다. 후보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또한 타인이 후보자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해야한다. 몇가지 진술이 후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 후보자의 영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던 중요한 전환점과 그 전개, 인물들, 사건들, 기타 여러 요소들에 중점을 둔 자신의 영적 삶의 자서전;
- 목회 사역을 위한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과 관계되어 있는 후보자의 영성 형성에 대한 자세한 서면 자기 진단과 평가.
- 후보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하나님의 위치,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영성훈련, 기도, 영적 권능 등에 관한 이야기.

메모(Note):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 보다 구두로 할 때 더 잘 표현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녹음을 하고 후보자의 서류철에 녹음 기록을 보관한다.

후보자에 대한 자질 평가를 하기 전에 후보자와 위의 진술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

귀하는 다른사람들이 후보자의 영성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를 알기위한 분명한 도구는 관계자의 추천이다.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목회 사역과 관계되는 특별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추천인의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관행은 후보자로 하여금 그를 잘아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로 부터 추천을 받는 것이다. 예를들면, 후보자의 담임목사, 다니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나 교인, 직장 동료, 친구 등이다.** 또한 후보자의 심리적 상태나 문화적 예민함을 고려하는 것도 평가에 도움이된다.

후보자의 진술과 추천인으로 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된다.

다음사항을 진행 챠트에 기록한다 - 목회를 위한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 향상에 대한 평가. (부록 1참조). 후보자가 목사안수에 적합한 개인적 자질 향상을 증명한 것에 만족한다면 그와 함께 이를 경축한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목사 안수를 위한 마지막 평가 때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나서야 비로서 주의를 기울인다. 귀하가 판단하기에 후보자가 목사 안수 전에 더 향상 되어야 한다고 믿는 개인적 자질은 후보자의 교육과 육성 정책이 필요한 목록에 첨가한다.

목회사역을 위한 지식과 기술 평가
(ASSESSING KNOWLEDGE AND SKILLS FOR MINISTRY)

목사 안수에 요구되는 16 개 항목의 목사 안수 후보 자격 요건 부문부터 시작한다. 이 부문에 묘사된 지식, 기술, 행동은 개인이 통상 집중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어떤 것들은 선배나 동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실천적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참으로 어떤 것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장 잘 습득 될 수 있다.

사목 위원회와 후보자의 안수 과정을 통해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후보자가 아는 것이 무엇이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계획 수립을 위한 후보자의 초기 평가를 할 때에 후보자의 교육과 경력을 살펴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실제적 지식과 능력에 대해 즉시 평가를 할 수 있고 학습 프로그램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을 평가할 때 교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 교회 혹은 다른 상황 속에서 후보자의 지도 경력은 무엇인가? 특히 라이센스 (자격증) 목회나 위임 목회를 하였는지 주목한다.
- 고교 졸업장이나 혹은 고교학력 기준 시험 (GED)을 통과 하였는지 여부.
- 고교학력 이상의 교육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코스를 밟았는지?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무슨 학위를 받았는지?
-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후보자가 수료했는지 (예를들면, 라이센스 목회자나 위임 목회자를 위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 학위 과정은 아닐지라도 어떤 정규 교육 과정이나 훈련을 실습지에서 받았는지 혹은 직업이나 기술학교 과정을 수료했는지? 그 학습과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 그외에 다른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어떤 지식, 기술 혹은 이해력을 길렀는지?

안수 후보자에게 학력과 경력을 요구할 때 다음 사항들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 후보자의 학력 증명서를 확인;
- 고교 졸업 이상의 경우에는 과목명이 포함된 성적 증명서 (발행 기관에서 직접 귀하에게 발송);
- 비 학위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 수료 증명과 교육 내용 증명
- 교회나 다른 기관에서의 지도 경력에 관한 진술. 서면이나 구두로 진술 할 수 있으나 구두로 진술할 경우에는 녹음을하고 후보자의 서류철에 보관한다.

  메모(Note): 후보자가 정규교육을 오래 전에 받아서 위에 열거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가지고 진행 할 수있다.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평가에 임할 만한 충분한 학력과 경력을 쌓았는지를 알려 주는 지식, 기술, 행동 분야;
2. 후보자에게 비교적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지식, 기술, 행동 분야.

교육 경력과 16 개 항의 목회 사역 분야를 상호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가 있다:

1. 16 개항의 목회 사역 분야 목록을 만든다. 각 분야마다 충분한 여백을 두어서 그곳에 후보자의 지식이나 기술을 확인 할 수 있는 경력사항, 혹은 교육을 받은 코스나 프로그램등을 기록한다.
   (셈플 차트 참조-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부록 2)
2. 각 분야 별로 코스, 프로그램, 경험 등을 알기위해 학력과 경력사항의 내용부터 살펴본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코스를 밟았는지도 살펴본다 (예: 크레디트 3 점 대학원 과정, 자격증 과정 훈련, 반나절 워크샵, 지도력 역할에 대한 일정 기간의 학습 등). 이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지식과 기술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3. 16 개 분야를 모두 검토하고 교육받은 코스와 프로그램을 확인하면 두개의 리스트를 작성할 준비가 된다.
   첫번째는 후보자의 목회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기초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목회 사역 분야이고,
   두번째는 후보자가 더 학습을 할 때 까지 아직은 후보자의 자격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목회 사역 분야이다.

이 과정속에서 귀하에게 명확하게 밝혀줄 몇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 정규 신학 대학원 과정이나 자격증/ 위임 목사 훈련과정을 밟지 않았거나 지도력 경험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이 섹션의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고 개인적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
- 정규 (학위 과정) 대학 및 신학 대학원 교육을 마친 후보자의 경우 이미 학업을 마친 분야를 평가하면 된다.
- 수년간 자격증/ 위임 목사로서 사역을 해온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에 포함된 내용을 평가한다.

안내: 이제까지의 작업을 통해 두개의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된다:
==========

- 후보자의 지식, 기술, 실습, 성향을 평가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학력과 경력을 나타내는 목회 실천 분야.
- 후보자가 평가받을 기준이나 준비에 미흡하여 교육적 일을 더 이수 해야하는 목회 실천 분야.

이제 처음 리스트를 참조한다. (후보자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학력과 경력 분야)

이 분야에 관계된 후보자의 성취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련의 평가 작업을 조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후보자에게 그의 학습 과정을 담당했던 강사로 부터 추천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한다. 추천서의 양식을 만들어 기대하는 특정 분야의 결과를 그 서식에 설명하고 각 결과에 관한 후보자의 성취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다.
- 후보자에게 배정된 문서나 프로젝트에 관해 후보자와 위원회가 토론한다.
- 후보자와 함께 탐구하기 위해 목회적 실천분야에 대한 사례 연구나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 후보자에게 설교 원고와 실제 설교를 요청한다.
- 후보자에게 예배를 개발하고 인도하도록 요청한다.
- 후보자에게 크리스천 교육을 개발하고 사목 위원들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처럼 가르치도록 요청한다.
- 후보자에게 그의 지도력을 잘 알고있는 사람들로 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던지 이 분야에 나타난 후보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 결과를 기록해 둔다. **이 목적을 위해서 차트를 사용한다.** (샘플 차트를 참조 바람 - 목회 사역을 위한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 성장에 대한 평가) 후보자의 능력에 만족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더 이상 진행할 일이 없다. 후보자의 성취를 함께 기뻐하면 되는 것이다. 보통 안수를 위한 최종 평가 전에는 이 같은 일을 다시 평가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귀하는 목회 사역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더 준비해야 되는 특별한 분야의 리스트를 갖게 된다. 이 차트는 후보자 개인에 맞는 교육과 육성책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삶의 정황 평가
(ASSESSING LIFE CIRCUMSTANCES)

이제까지의 평가 작업으로 부터 귀하는 후보자가 더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리스트를 갖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후보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신호를 보여준다.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전에 숙고해야 할 몇가지 일들이 있다.** 이 몇가지 일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결정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일들은 후보자의 삶의 정황속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후보자와 함께 교육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유용한 질문들이 있다:

- 만일 후보자가 학사 학위 혹은 이와 동등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학위가 공식 대학 평가 위원회가 인정한 학위인가?
- 만일 후보자가 학사 학위를 갖고 있지 않으나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충분한 인생경험이 있거나 혹은 직업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귀하의 지방회 혹은 해당 거주지 주에 이를 기준으로 학사 학위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만한 대학이 있는가?
- 만일 후보자가 학사 학위가 없지만 신학 대학원에 지원 할 수 있는가? (신학 대학 인정 평가 위원회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는 신학 대학원에게 학급의 10 % 범위까지 학사 학위가 없으나 대학원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학생에게는 지원 자격을 준다.)
- 후보자가 신학 대학원에 갈 수 있다면, 켐퍼스로 이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통근할 수 있는 학교가 인근에 있는지 아니면 통신 대학 과정을 통해 목회학 석사 학위 M.Div. 를 받을 수 있는 신학 대학원이 있는지? 만일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 보아야 하는지 혹은 지방회나 다른 구체적 지원 (예: 재정 지원)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지?
- 지방회는 얼마나 오랫동안 후보자의 사역 준비 과정을 기다릴 수 있는지? 아니면 절차를 밟는 동안 후보자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 후보자가 목회 준비를 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과 실제 안수 후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년수 사이의 균형 문제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이 있는가 (예: 나이, 재정 상태)?
- 목회 육성에 대한 가능한 선택 사항 중에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는데, 제한적이지는 않는 사항들이다: 신학 대학원 교육, 지방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멘토링 기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특정한 후보자에게 가장 문화적으로 효과적인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들인가?

- 만일 후보자가 이미 다른 신학 교육이나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면 그리고 신학 대학원을 가는 것이 그의 안수 준비를 마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라면 어떤 선택이 가장 바람직 한 것인가:
  가. 목회학/신학 석사 학위 (M.Div.)
  나. 다른 신학 대학원 학위 (짧은 과정)
  다. 이미 후보자가 마친 과정을 보충하기 위해 디자인 된 특별 과정

이러한 질문들은 후보자와 함께 교육과 육성 정책을 개발할 때 비중을 두기 원하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항상 후보자가 어느 특정한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서 교회가 가장 잘 준비된 최선의 지도자로 부터 섬김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을 교육과 육성 정책으로 바꾸라

(TURNING ALL THIS INTO AN EDUCATIONAL AND FORMATIONAL PLAN)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계획으로 이끌어 오는 간단한 길은 이 모든 평가 작업을 지방회 사목 위원회에게 두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해주는 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 후보자의 재능과 성장해야 할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후보자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된다.
- 후보자의 삶의 정황을 평가 함으로서 그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여건과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적 상항을 이해하게 된다.

귀하의 목적은 후보자와 함께 개인에 맞는 교육과 육성 정책을 개발하여 후보자가 안수에 필요한 발전을 경험 하도록 요구되는 여러 다양한 활동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계획은 문자로 기록 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개인적 자질과 목회 실천 분야
- 교육과 육성 정책
- 학습이 일어나는 특별한 교육적 환경

그러한 계획의 목적은 후보자에게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 역할을 하기 위함이고 위원회에게는 후보자의 평가 과정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함이다.

후보자의 교육과 육성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최적의 상황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공식처럼 정확한 과정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후보자는 대학을 마치고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신학 대학원에 가게 된다. 중요한 질문은: 어떤 신학 대학원이 후보자에게 최선의 선택일까 그리고 안수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다. 또 다른 경우는 교육과 육성 정책이 몇 개의 다른 접근 방식과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신학 대학원, 지방회의 교육 프로그램 혹은 멘토링

기회)과의 결합이 될 것이다. 또는 매우 특별한 계획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정 과정을 통해서 따를 수 있는 유용한 규칙이 있다:**

1. ***만일 후보자가 학사 학위가 없다면, 혹은 있더라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가 부족하다면 그 계획속에 해당 대학 과정이나 이와 동등한 과정을 포함 시킨다.*** 이러한 주제들은 통상 지방회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포함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지방 초급대학(Community Colleges)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택할 수 있다.

2. **만일 16 개항의 목회 사역 분야에 관계된 것에 대해 더 준비가 필요하다면, 그 후보는 체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신학 대학원을 다니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택할 수 있다.) 참조: 어떤 경우에는신학 대학원의 문학 석사 (M.A.) 학위가 충분할 수도 있다.

3. ***만일 후보자에게 16 개항의 목회 사역 목록중 일부만 보충해야 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특별 코스만 택하면 된다.*** 신학 대학원 과정이나 지방회의 교육 프로그램 혹은 멘토링을 통해서 마칠 수 있다.

4. **만일 후보자가 신학 대학원을 다니려고 하지만 목회를 위해 영성 훈련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면, 후보자의 교육과 육성 정책에 특별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후보자의 부족한 분야를 성숙 시키기 위한 지원 활동 계획이다.** 목회학 석사 (M.Div.) 프로그램은 이러한 일들을 대하는데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적용된다.

5. 일반적으로 후보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 대학과 신학 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나. 필요한 학과 과정을 등록 할 수 있다.
   다.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 졸업 후 여러해 동안 사역할 수 있다.
   마. 문화적으로 적합한 학교를 찾을 수 있다.
   바. 지방회 소속 교회가 그 후보자의 사역을 즉각적으로 긴급히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후보자를 대학이나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 사항이다.

이러한 후보자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교육과 육성 정책은 특별 학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학교 혹은 여러 교육 기관에 등록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그 계획의 나머지는 택해야 할 특별 코스에 대한 안내와 활동에 대한 지시 사항이 포함된다. 이렇게 하므로서 후보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과 육성 정책을 달성하게 된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을 유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무엇이 후보자의 핵심 프로그램의 강점인가?
- 후보자를 위한 교육과 육성 정책 필요와 상황에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는가?
- 후보자가 교회를 인도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동시에 "삶의 정황" 섹션에 명시된 모든 조건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어떤 후보자들은 대학과 신학 대학원 과정을 살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으로 그들의 필요를 다 파악했다고 여기면 안된다. **예를들면,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혹은 대학이나 신학 대학원이 후보자가 부름받은 목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역 하기위해 필요한 교육과 영성 훈련을 제공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삶의 정황이나, 원거리 교육기관,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 등의 요소가 중대하게 여겨진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더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 필요할 경우 여러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권고한다. 이를테면, 지방회, 총회, 대학, 대학교, 신학 대학원의 직원들, 때로는 후보자의 커뮤니티를 잘 아는 사람들 특히 총회 내의 소수민족 사역책임자 등에게 도움을 구한다.

각 경우에 따라, 귀하가 후보자와 함께 개발해 나가는 교육과 육성 정책이 더 세분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개별화 되고 더 많은 서류가 첨가 될지도 모른다.교회의 교육 기관들은 계속해서 더욱 더 다인종 다문화의 추세로 나아가게 된다. 원거리 교육 장소를 제공해 주고 개별화된 계획을 필요로하는 후보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 3:14)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목사 안수 후보자에 대한 진행 중인 평가
ONGOING ASSESSMENT OF A CANDIDATE FOR ORDINATION WHILE IN AN EDUCATIONAL PROGRAM

서문

"진행중인 평가"란 후보자가 초기 평가 과정에서 개발된 개별화 된 교육과 영성 개발 계획을 추진 할 때 발전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성취 해야 할 분야에서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사목 위원회 혹은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후보자와 함께 수행하는 검토 작업이다. 진행 중인 평가는다음과 같은 사항이 실행 되는 것을 허락한다:

- 안수 준비를 위해서 교육과 영성 개발 훈련을 받기로 동의하고 진행중인 후보자의 발달 과정을 모니터 한다;
- 준비 과정이 진행 되는 동안 후보자의 성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교육과 영성 개발 정책을 중간에 조정한다
- 후보자의 재능에 대해 보다 치밀한 통찰력을 가지므로서 후보자가 안수에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판단한다;
- 최종평가와 안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견고한 토대를 마련한 여러 평가 기록들을 종합한다.

효과적인 진행중 평가는 위원회가 각 후보자에게 면담 전에 특별한 자료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미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 한다. 또한 많은 시간을 후보자와 함께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질과 목회 사역 실천 분야에 관계된 후보자의 발전 과정을 공동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게 된다. **진행중 평가 모임들은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경축하는 모임이 되고 후보자의 교육과 영성 개발 계획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모임이 되며 후보자가 가장 잘 준비를 갖추는 기회가 되며, 후보자가 받은 소명의 본질에 대해 계속적인 통찰력을 갖게되는 기회가 된다.**

정기적인 검토와 관련해서 진행중인 평가

(THE ONGOING ASSESSMENT IN THE CONTEXT OF PERIODIC REVIEW)

후보자에 대한 진행중인 평가는 목표가 있는 과정을 밟는다. 어떤 과정이든지 10 개 항목의 자격 요건이나 16 개의 목회 실천 분야와 관련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귀하의 목표는 과거 후보자의 교육과 육성책을 위해 수립한 자격과 경력 사항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다.** 후보자가 이미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된 분야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미래에 있을 교육과 육성 정책에 대해 후보자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10 개 항목의 자격요건과 16 개의 목회 실천 분야에 대해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위 사항들이 과거 학습 계획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초기 평가 때 처럼 집중 할 필요는 없다. 귀하가 집중하는 분야에 따라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평가 자원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초기 평가” 섹션을 참고 바람)

후보자의 교육과 육성 정책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

- 해당 년도에 계획했던 목회사역 실천 분야에서 어떤 진전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서면 자기평가;
- 해당 년도에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교수, 수퍼바이저, 혹은 관계자로 부터의 추천서 (추천서에는 관련 분야 활동과 그 결과가 특별히 명시되어야 한다);
- 후보자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력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 (프로그램과 해당년도의 작업에 달려있음), 성적표, 함께 코스를 택했던 급우들의 평가, 목회지 실습 담당 수퍼바이저의 평가, 여러 다양한 평가 과정등. 만일 병원 원목 실습 [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 - CPE evaluations]을 받았다면 그 평가서.
- 후보자가 속해있는 공동체로부터 평가와 조언.
- 기타 후보자가 위원회와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정보.

특별히 학생의 교육과 육성 정책 후기에 있는 경우 (신학 대학원 3 년 과정 중 2 년차) **목회적 지도자 훈련을 쌓기 위해 실습지로 후보자를 보내어 여러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 평가 할 것을 요구한다.**

이 모든 자료들을 검토작업 전에 미리 받아본다. 검토 작업은 16 개 분야의 목회 사역 실천 분야와 관계된 후보자의 발전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원회와 후보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든 공동 평가 결과를 진척도 관리 도표에 기록한다. 모든 서면 자료들은 후보자의 파일에 보관한다.

귀하가 만일 목회 사역을 위한 다른 개인적 자질 항목들을 매년 검토하기 위해 보관하기를 원한다면, 비록 그 항목들이 년간 교육 정책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평가 정보들을 원할 것이다. 후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적 자질에 관한 평가
-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
  - 후보자의 지난 한해 동안의 영적 삶과 영적 훈련
  - 후보자의 감성적, 관계적 삶
  - 후보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 지난 한해 동안의 경험과 그에 대한 반응

개인적 자질과 관련된 **후보자의 품행과 기질을 나타내는 참고 자료들**을 여기에 추가하여야한다. 이러한 자료들이 검토 작업중에 후보자와 토론할 주제가 된다. 10 개 항목의 개인적 자질에 대한 귀하의 판단 결과는 진척도 관리 도표에 기록하고 그 기록은 후보자의 파일에 첨부한다.

실행을 위한 추가 자원

ADDITIONAL RESOURCES FOR IMPLEMENTATION

연합 그리스도의교회 (The United Church of Christ) 는 공인된 목회 사역을 위해 후보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협회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료 관리를 준비했다.비록 자료 관리 운영이 여전히 진행 중 이지만, 소명의식에 대한 통찰력과 목회 사역을 위한 준비에 관해서 후보자와 언약관계로서 밟고있는 작업 과정에 대한 신학적 실제적 성찰을 하게한다. 자료운영 관리면에서 볼 때 크리스천 교회 지방회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적합치 않다. 왜냐하면 방침, 정책, 처리 과정, 목회에 대한 이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 사목 위원회는 이 자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UCC) 에서 개발된 실제적 지침서를 폭넓게 참조 하였고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의 포트폴리오에는 교회의 삶에서 어떻게 통찰력이 이해되고 실천 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내포되어 있다. **지방회 사목 위원회와 안수 후보자는 통찰력 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인용된 문헌과 토론 내용을 잘 읽고 반영할 것을 권유한다.**

그 포트폴리오는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의 웹싸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ucc.org/ministers/ministry-issues/Draft-3-1-MIIC-May-09-no-watermark-REVISED.pdf. 관계 항목은 36 면에서부터 44 면 까지 계속 된다.

본 안내서는 실행 위원회가 제작한 것이며 2010 년 8 월 31 일 회의에서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총 사목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목사 안수 후보자를 위한 교육과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선별하기 위한 기준
Criteria for Creating, Evaluating and Selecting Educational/Formational Opportunities for Candidates for Ordination

모든 목사 안수 후보자들은 총회에서 제정한 목회 실천 분야를 포함한 개인적 자질 기준에 도달하도록 그들을 양육하여 온 교육 과정과 영적 체험을 빠짐없이 마쳐야한다. 대부분은 신학 대학원 과정을 통해 충족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견습생 과정으로 자격 요건을 맞출 수 있다.

견습생 과정에 있는 후보자들과 함께 일하는 지방회 사목 위원회는 목회 실천 분야를 포함하여 개인적 자질을 증명하는 교육과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직 완전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지방회는 즉시 모든 요건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실행 위원회가 각 지방회로부터 자료들을 모아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적절한 지를 연구할 것이다.

실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진행중인 지방회의 경우 약간의 교육과 육성 정책만 적용하면 된다

학습 현장 목록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리라 기대한다. 총 사목 위원회 (GCOM)의 목적은 지방회에 추천할 만한 승인된 교육과 영성 체험을 할 만한 학습 현장을 한 두개 정도 인지하는 것이다. 총 사목 위원회는 지방회에서 추천된 대안 목록을 온라인에 올려 놓을 것이다: http://www.disciples.org/OrderingofMinistry/tabid/698/Default.aspx.

확신있게 추천할 만한 교육기관은 제자교회나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계된 교육기관들이다: 신학 대학원, 제자회 학사, 특별 지정 교육 기관, 예를들면 Missouri School of Religion, Cotner College, Christian College of Georgia, 등 혹은 다음과 같은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Churches Uniting in Christ (CUIC)},
- 지방회 연합회
- 교회가 신뢰할 만한 기관들, 예를 들면, Alban Institute, Chautauqua Institution 기관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목회사역 실천 분야에 집중 한다면. 이런 학습의 기회가 안수 후보자에게 적합할 수 도 있다.

신학 대학원 과정을 택하고 있는 안수 후보자와 함께 일하는 지방회는 후보자가 재학하고 있는 신학 대학원이 신학 대학원 연합회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의 인가 받은 학교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회는 아래 질문 사항들을 사용하여 신학 대학원의 목회학 석사 과정 (M.Div.)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과 과목 선정을 안내 할 수 있다.

지방회 사목 위원회가 교육과 육성 정책의 대안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해도 좋다. 이러한 질문들은 안수 후보자로 지위 변경을 하는 교역자 자격증 혹은 위임 목사 자격증을 가진 목회자의 교육 경력을 평가 하는데도 사용할 수있다. 비록 이 질문에 제기된 문제들이 후보자의 교육과 육성 과정에 대해 중요한 면을나타낸다 할 지라도 한 개인의 학습 경험을 다 다루지는 못한다

질문들:

- 학습 경험이 개인적 자질과, 혹은 사역의 실천 분야의 학습 결과와 어떻게 관련 되는가?
- 어떤면에서 이 경험이 여러 다양한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예민함을 넓혔는가?
- 어떤 면에서 학습 활동과 스타일이 개인의 필요와, 주안점과 개인적 자질에 적합한가?
- 어떤 면에서 이 경험이 개인을 신학적 이해와 접근 방식의 범위로 인도하는가?
- 어떤 면에서 이 경험이 개인으로 하여금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도록 독려하는가?
- 어떤 면에서 이 경험이 개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사역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반영하도록 격려하며 사역의 실천 분야에서 연결점을 끌어 오는가?
- 어떤 면에서 그 경험이 개인과 지방회와 교회의 문화와 공동체적 상황과 관계되는가?
- 어떤 면에서 그 경험이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의 정신 (정체성/가치관)과 우선 순위를 잘 반영하는가?
- 주안점과 사역의 실천 분야와 관련하여 교사/자원 공급자의 자격은 무엇인가?